

## 『오해 *Malentendu*』

### 현실은 유배지

마르타 : 아, 어머니 돈을 모아서 지평 없는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면 이 여인속도 비 많이 오는 이 도시를 우리 뒤로 하고 이 그늘진 고장도 잊어버리게 되면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렸던 그 바다를 눈앞에 대하는 날이 온다면 그 날은 어머니도 저의 웃음 짓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.

### 마음

어머니 : 이제야 알 것 같다. 내 마음이 말해주는 거니까. 산다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구나.

마르타 : 당신의 딸이 겪고 있는 이 비통함 보다 더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?

얀 : 저 곳의 봄은 당신을 숨막히게 할 정도입니다. 하얀 담장 위에 수천 수만 송이 꽃들이 피어나요. 우리를 에워싼 언덕을 한 시간만 걸어보세요. 옷에 꿀향기를...

마르타 : 정말 황홀한 곳이군요. 이 고장에선 봄이라야 수도원 앞뜰의 장미꽃 한 송이와 돌아나는 꽃봉오리가 고작이에요. 이곳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야단이라니까요.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도 그 인색한 장미를 닮았어요. 조금 거센 바람만 불어도 그 자리에서 시들어 버리죠. 그 사람들에게 그 봄인 셈이죠.

### 고독의 첫 번째 정의: <세상 속에서 유배당함>

마르타 : 설령 천 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여전히 고독이에요. 나는 혼자 살아 왔고 혼자 죽어 왔으니 혼자 죽는 게 당연해요.

마르타 : 그 미친 짓은 댓가를 받았어요. 당신도 곧 당신의 댓가를 받을 겁니다. 내 말해두겠지만 우리는 도둑맞은 거예요. 존재의 그 커다란 부름과 영혼들의 그 경고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. 무엇 때문에 바다를 향해 사랑을 향해 소리쳐야 되는 거죠? 다 부질 없는 짓이죠. 당신의 남편은 이제 그 답변을 알아요. 마침내 우리들이 서로서로 -그 뭐라 하나? 만원버스, 꼭 끼쳐서 있는거, 콩나물 시루 하고 똑같애- 바짝 붙어서 죄고 있는 이 끔찍한 집이 그 답이죠. 당신 또한 이 답변을 알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때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<유배>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 날을 아마도 달콤한 추억으로 갖게 될 겁니다.

얀 : .... 그 다음일은 신께 맡기면 되요. 그러지만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도 알고 계세요. 다만 사람은 유배(EXIL)나 망각 속에서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요. 언제까지나 이방인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소. 나는 내 고향을 되찾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소. ....

## 신(神)은 애원의 대상

마르타        돌 같은 존재가 되게 해 달라고 당신의 하느님께 빌어요. 신 자신이 택하는 것이 바로 그 행복입니다. ....

불어 번역: 당신이 돌처럼 되게 해 달라고 당신의 신에게 기도 하세요 '그것'은 신 자신이 자신을 위해 택한 행복이니까요. -그것: 돌처럼 되는 것, 그것이 신 자신을 위한 행복- 그것만이 유일한, 참다운 행복이니까요. 신처럼 하세요.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과 합류하세요. 그런데 이러한 말없는 평온함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당신 스스로 비겁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공동의 집으로 우리와 합류하러 오세요. 안녕, 내 누이여. 보시다시피 모든 게 쉽잖아요. -야유조로- 돌맹이들의 멍청한 행복과 우리가 당신을 기다릴 끈적끈적한 잠자리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야 할 거예요.

마르타 : 아! 우리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나는 증오했어.

## 가족, 이방인

얀        그래도 나는 조금은 돌아온 자식을 위한 만찬을 기다렸는데 세상에 돈 받고 맥주를 줘야.

얀    ...방금 처음으로 인간다운 말(환대)을 입 밖에 낸 것 같습니다.

마르타 : 아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좋아할 이유는 없어요. 내가 지니고 있는 인간다운 면은 내가 지닌 가장 좋은 면은 아니죠. 내가 지니고 있는 인간다운 면은 내가 갈망하는 것이에요.

얀 : 나 아직 그 말 못 찾았어. 근데 괜찮아. 그렇게 급하지 않아. 나는 이 집에 재산을 가져다주러 온 거야. 가능하다면 행복도 말야. 내가 아버지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두 모녀에게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말처럼 자기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을 아닌 것 같아. 어떤 이방인의 아들 행세를 하는데에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.

마리아 : 당신은 이방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아들인데 왜 본인이 아닌 행세를 하려해요.

## 호의적인 무관심

마르타 : 설령 아들이 이 집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무 손님이나(그 누가 손님이든) 이 집에서 확실히 받는 것을 받을 거예요. 말하자면 호의적인 무관심 말이에요.

## 애원의 신

하인 : 부르셨나요?

마리아 : 내가 그랬던가요? 어쨌든 도와주세요.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. 저를 불쌍히 여겨 도와 주겠다고 해 주세요.

하인 : NON!